



4주_오차 및 관측값처리

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
박 홍 기

유효숫자(Significant Figures)

- ▶ 유효숫자(Significant figures)는 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이다. 보통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숫자는 유효숫자이다.
 - 0.00012의 1 앞에 있는 0들처럼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한 0
 - 유효숫자가 아닌 자리의 숫자와 연산하여 영향받은 자리의 숫자
 - 측정 기구의 한계로 정확하지 않은 자리의 숫자
- ▶ 101.12는 5개의 유효숫자 (1, 0, 1, 1, 2)
- ▶ 0.00012는 2개의 유효숫자 (1, 2)
- ▶ 120.00은 5개의 유효숫자 (1, 2, 0, 0, 0)
- ▶ 15000의 유효숫자가 네 개라면, 반드시 1.500×10^4 으로 표기해야 한다.



오차의 종류

- ▶ 착오(mistake) 또는 과대오차(blunder, gross error)
 - 측량자의 과실, 부주의, 미숙 등이 원인, 오차제거 가능
- ▶ 정오차(constant error)
 - 누차로서 오차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불변의 오차 - 자연오차, 기계오차, 개인오차
 - 계통적 오차(systematic error): 주로 기계오차
- ▶ 우연오차(random error; 부정오차)
 - 착오, 정오차, 계통오차를 소거한 후 남는 것.
 - 원인 모름, 통계적 처리

오차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

① 기계오차 (Instrumental Error)

- 장비오차라고도 하며, 관측기계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오차
-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측하기 전에 기계에 대한 점검과 조정(검교정)을 해야 하는데, 기계를 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량을 계산하여 관측값을 보정해야 한다.

② 자연오차 (Natural Error)

- 환경오차라고도 하며, 관측을 수행할 때의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조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. 바람, 습도, 중력, 온도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 된다.
-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측과 동시에 온도, 습도 등 외부 환경 조건을 기록하여 조건에 따른 오차 보정량을 이용하여 관측값을 보정한다.

③ 개인오차 (Personal Error)

- 관측자의 숙련도나 관측 습관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
- 예를 들면, 눈금을 읽을 때 최소눈금 사이를 읽는 방법이 관측자마다 다르기 때문에, 또는, 측량기계 수평맞추기에서 관측자마다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개인오차라고 할 수 있다.



정확도와 정밀도

- ▶ 정밀도(precision): 측정값들의 상대적인 편차가 적은 것
 - 측정 과정과 밀접한 관계
 - 측정 방법과 장비에 크게 영향을 받음
 - 우연오차와 매우 밀접
- ▶ 정확도(Accuracy): 측정값이 참 값에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표시하는 척도
 - 측정결과와 관련
 - 정오차, 착오 제거 관련



오차의 일반 법칙

▶ 확률곡선이 가지는 “오차의 일반 법칙”

- ① +오차와 -오차는 같은 빈도로 발생
- ② 매우 큰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
- ③ 작은 오차는 큰 오차보다 더 자주 발생

분산 (Variance)

- ① 자료집합 내에서의 개별 관측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,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
- ② 잔차의 단순합과 잔차의 평균은, 오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0이 된다. 따라서, 개별관측의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잔차의 제곱의 합을 관측수로 나눈 값(잔차제곱의 평균)을 사용하며, 이것을 분산이라고 한다.
- ③ 모집단의 흩어진 정도를 표현한 모집단 분산과 표본집단의 흩어진 정도를 표현한 표본집단 분산이 있음
- ④ 모집단 분산 (모분산):
$$\sigma^2 = \frac{\sum(y_i - \mu)^2}{n} = \frac{\sum \varepsilon^2}{n}$$
- ⑤ 표본집단 분산 (표본분산):
$$S^2 = \frac{\sum(y_i - \bar{y})^2}{n-1} = \frac{\sum v^2}{n-1}$$

표준편차 (Standard Deviation)

- ① 분산의 경우 단위가 관측값의 제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, 관측값의 정밀도를 관측값의 단위와 일치하는 값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분산에 제곱근을 취하여 이것을 “표준편차”라고 하였다.
- ② 모집단 분산의 제곱근을 특별히 표준오차(Standard Error, σ)라고 부르고, 표본집단 분산의 제곱근을 표준편차(Standard Deviation, S)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.

- ③ 표준오차 :

$$\pm \sigma = \pm \sqrt{\sigma^2} = \pm \sqrt{\frac{\sum (y_i - \mu)^2}{n}} = \pm \sqrt{\frac{\sum \varepsilon^2}{n}}$$

- ④ 표준편차 :

$$\pm S = \pm \sqrt{S^2} = \pm \sqrt{\frac{\sum (y_i - \bar{y})^2}{n-1}} = \pm \sqrt{\frac{\sum v^2}{n-1}}$$

- ⑤ 공간위치결정에서는 관측에서 모집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, 일반적으로 일컫는 ‘분산’과 ‘편차’는 ‘표본분산’과 ‘표준편차’를 말한다.
- ⑥ RMSE(Root Mean Square Error): 영어 해석 그대로, 잔차 제곱의 평균에 제곱근을 취한 것으로서, 표준편차의 정의와 동일하다. 그러나, 위의 분산과 표준편차는 미지수 1개에 대한 반복관측에 의한 개별관측의 정밀도인데 반하여, RMSE는 미지수 2개 이상이 포함된 관측의 정밀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.

최확값

▶ 최확값

- 경중률이 일정할 때

$$L_0 = \frac{L_1 + L_2 + \dots + L_n}{n}$$

- 경중률을 고려할 때

$$L_0 = \frac{P_1 L_1 + P_2 L_2 + \dots + P_n L_n}{P_1 + P_2 + \dots + P_n}$$

여기서, $L_1, L_2, L_3, \dots, L_n$: 관측값

$P_1, P_2, P_3, \dots, P_n$: 경중률

평균제곱근오차

▶ 최확값에 대한 평균제곱근오차

- 경중률이 일정할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\psi^2]}{n(n-1)}}$$

- 경중률을 고려할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\rho\psi^2]}{[\rho](n-1)}}$$

▶ 1관측값에 대한 평균제곱근오차

- 경중률이 일정할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\psi^2]}{(n-1)}}$$

- 경중률을 고려할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\rho\psi^2]}{(n-1)}}$$

여기서, M_0 : 평균제곱근 오차

n : 관측회수

ψ : 잔차(관측값-최확값)

확률오차와 정도

- ▶ 확률오차 : 분포함수의 면적의 50%

$$v_q = \pm 0.6745(M_q)$$

- ▶ 정도 :

- 정도는 관측이 수행된 후 취득된 관측값이 그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보는 수단
- 최확값과 표준 오차와의 비로 표현되며, 측량학의 경우, 분자가 1로 표현됨
- Coefficient of Variation (COV) 정도 = $\frac{v_q}{L_q}$, 또는 $\frac{M_q}{L_q}$
- 상대오차(relative error): 측정값의 크기와 오차의 비
- 거리측량의 정밀도 표시 시 사용
 - 10m 관측값에 +1 mm 잔차는 상대오차가 1/10,000 임

경중률

- ▶ 경중률(weight): 무게, 중량
 - 한 측정값과 이와 연관된 다른 측정값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성을 표현하는 척도
 - 한번 관측한 결과보다 100번 관측한 것이 신뢰
 - 10m 거리를 측정한 것이 10km를 측정한 것보다 신뢰
 - 중량은 분산의 크기에 반비례(분산이 크면 오차가 크므로)

$$\text{weight} \propto N \text{ (관측회수)}$$

$$P_1:P_2:P_3 = N_1:N_2:N_3$$

$$\text{weight} \propto \frac{1}{S} \text{ (노선거리)}$$

$$P_1:P_2:P_3 = \frac{1}{S_1} : \frac{1}{S_2} : \frac{1}{S_3}$$

$$\text{weight} \propto \frac{1}{m^2} \text{ (} m: \text{ 평균제곱근 오차)}$$

$$P_1:P_2:P_3 = \frac{1}{m_1^2} : \frac{1}{m_2^2} : \frac{1}{m_3^2}$$

최확값과 평균제곱근오차

▶ 최확값의 결정

경중률이 같을 때

$$L_0 = \frac{L_1 + L_2 + \dots + L_n}{n}$$

경중률이 다를 때

$$L_0 = \frac{P_1 L_1 + P_2 L_2 + \dots + P_n L_n}{P_1 + P_2 + \dots + P_n}$$

▶ 평균제곱근오차의 결정(RMSE): 분포함수의 0.6826 즉 68%

- 최확값에 대한 평균제곱근오차

경중률이 같을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vv]}{n(n-1)}}$$

경중률이 다를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Pvv]}{[P](n-1)}}$$

- 1관측값에 대한 평균제곱근오차

경중률이 같을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vv]}{n-1}}$$

경중률이 다를 때

$$M_0 = \pm \sqrt{\frac{[Pvv]}{n-1}}$$

오차 전파(우연오차 또는 부정오차)

- ▶ 관측값들을 사용하여 어떤 결과값을 얻게 될 때, 결과값의 평균제곱오차는 각 평균제곱근 오차의 제곱근이 된다.

- ▶ 오차전파식

$$M^2 = \left(\frac{\partial f}{\partial x}\right)^2 m_x^2 + \left(\frac{\partial f}{\partial y}\right)^2 m_y^2 + \dots$$

$$\text{또는 } M = \pm \sqrt{\left(\frac{\partial f}{\partial x}\right)^2 m_x^2 + \left(\frac{\partial f}{\partial y}\right)^2 m_y^2 + \dots}$$



측량학에서 필요한 기초수학

- ▶ 각도 : 60진법, 라디안, 호도법
- ▶ 삼각함수
- ▶ 삼각형 : sine 법칙, 피타고라스 정리
- ▶ 미분
- ▶ 적분
- ▶ 오차전파
- ▶ 면적 공식, 체적 공식



The End